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443>

JCCT 2019-2-57

##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양진주\*

Yang Jin Ju\*

**요약** 이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는 2017년 6월에 55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3.70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3.57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93점 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요인의 평균은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간호능력, 환자교육능력, 간호과정능력,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간호중재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요인 중 지적 열정/호기심과 객관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의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주요어** : 간호학생, 비판적 사고, 수행능력, 만족도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a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clinical performa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iven to 55 nursing students at June, 2017. **Results:** The mean score of total clinical performance was 3.70 ( $\pm .54$ ). Tota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7 ( $\pm .44$ ) and clinical satisfaction was 3.93 ( $\pm .72$ ). Regarding clinical performance, psycho-social competence was highest followed by basic care competence, educational care competence, nursing process competence, observing and monitoring competence, and nursing interven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ing various clinical education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for clinical competence is necessary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satisfaction

\*정회원,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11일, 수정완료일: 2018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5일

Received: October 11, 2018 / Revised: November 21, 2018

Accepted: December 15, 2018

\*Corresponding Author: yangjj@gh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Korea

## I. 서 론

최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은 내, 외과 병동 및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실무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은 간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우면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며 간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1][2].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낯선 병원 환경에서 이뤄지는 임상실습 중에 만나게 되는 환자나 보호자 및 의료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임상실습 중에 하나라도 더 경험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고하였다[3]. 또한 간호학생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종합병원의 실습 중에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 및 실무 적응능력의 부족 등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실습기간 동안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계획하고 직접술기가 제한된 환경에서 간호중재를 관찰하고 보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4] 실습 전에 이론지도, 핵심기본 간호술기 및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등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낮추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된다[5][6][7][8].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간 통합으로 성인간호학실습 웹 콘텐츠를 개발하였는데, 실습 콘텐츠나 모듈개발에 앞서 학습자 동기나 주도적 학습 성향 등 주관적인 요인이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9].

최근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실습현장 사례에 관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탐구와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10][11]. 또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교육과정에서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상황에서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12], 주어진 업무에 대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3][14][15][16].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적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으므로[17],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8].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체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임상실습 교수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을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의 수는 G power analysis 3.1 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alpha = .05$ , 효과크기  $p = .15$ , 검정력 = .80을 구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55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3학년 간호학과 학생 중 한 학기 동안 내, 외과 병동 실습을 마친 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미 응답이나 부적절하게 설문지에 응답한 3명을 제외한 총 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대상자 탈락률은 5.1% 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이란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간호수행능력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간호 능력, 관찰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한 환자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 임상상황에서 적절하고 유능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0].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과정능력 4문항, 간호중재능력 4문항, 사회심리적 간호능력 3문항, 환자교육능력 3문항,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2문항, 기본간호능력 3문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2)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등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21]. 체계성은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탐구하고,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지적 공정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결과일지라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회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함을 의미한다.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은 배움을 열망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열정적으로 지식을 추구함을 의미하고,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정확한 결과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감은 자신의 사고 과정과 추론 능력에 자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3) 임상실습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한다’ 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의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에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III. 연구의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간호수행능력 3.78점, 환자교육능력 3.75점, 간호과정능력 3.68점,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3.63점, 간호중재능력 3.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은 지적공정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객관성 3.75점, 건전한 회의성 3.61점, 자신감 3.54점, 지적열정/호기심 3.51점, 체계성 3.36점, 신중성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93점이었다<표 1>.

표1.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n=55>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n=55>

| 변수       | 범주 (항목 수)        | M ± SD<br>(per item) or<br>N(%) |
|----------|------------------|---------------------------------|
| 성별       | 남                | 10(18.2)                        |
|          | 여                | 45(81.8)                        |
| 임상수행능력   | 간호과정능력 (4)       | 3.68 ± .57                      |
|          | 간호중재능력 (4)       | 3.61 ± .65                      |
|          | 사회심리적 간호능력 (3)   | 3.79 ± .67                      |
|          | 환자교육능력 (3)       | 3.75 ± .60                      |
|          |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2) | 3.63 ± .65                      |
|          | 기본간호능력(3)        | 3.78 ± .58                      |
|          | 합계 (19)          | 3.70 ± .54                      |
| 비판적 사고성향 | 체계성 (5)          | 3.36 ± .66                      |
|          | 지적공정성 (3)        | 3.94 ± .56                      |
|          | 건전한 회의성 (5)      | 3.61 ± .60                      |
|          | 객관성 (7)          | 3.75 ± .59                      |
|          | 지적 열정/호기심 (5)    | 3.51 ± .63                      |
|          | 신중성              | 3.12 ± .38                      |
|          | 자신감              | 3.54 ± .59                      |
|          | 합계 (27)          | 3.57 ± .44                      |
| 임상실습만족도  |                  | 3.93 ± .72                      |

## 2.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r = .618$ ,  $p = <.001$ ),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r = .013$ ,  $p = <.924$ )<표 2>.

표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n=55>

Table 2. The relationship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n=55>

| 변수       | 임상수행능력<br>r(p)   |
|----------|------------------|
| 비판적 사고성향 | .618<br>( <.001) |
| 임상실습만족도  | .013<br>(.924)   |

표 3.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5>

Table 3.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n=55>

| 변수                                       | B     | SE   | $\beta$           | t     | p     |
|--|-------|------|-------------------|-------|-------|
| 상수                                       | 1.267 | .401 |                   | 3.162 | .003  |
| 지적열정/호기심                                 | .405  | .098 | .478              | 4.148 | <.001 |
| 객관성                                      | .272  | .106 | .296              | 2.568 | .013  |
| R  |       |      | .662              |       |       |
| R <sup>2</sup><br>(Adj. R <sup>2</sup> ) |       |      | .438<br>(.416)    |       |       |
| F(p)                                     |       |      | 20.249<br>(<.001) |       |       |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7도 3학년 1학기 말에 55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70점이고, 하부 요인 중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본간호수행, 환자교육, 간호과정, 관찰 및 모니터링, 간호중재능력 순으로 나타났는데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22]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할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대인관계 및 전문직 발전 능력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 년간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할 결과 간호기술, 교육, 간호과정의 점수 낮게 나타난 결과[23]와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가장 높고, 간호중재능력은 가장 낮은 능력을 나타낸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실습 중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기술이 두 번째 순위의 임상수행능력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기본간호수행능력이 두 번째 순위의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통해 직접습기의 제한적인 임상실습

문제를 극복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중재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반의 통합실습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한다고 본다[25].

한편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를 근거로 복합적인 대상자 상황에서 간호중재를 계획 하는 능력 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관찰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판독 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 중 지적 공정성의 평균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객관성, 건전한 회의성, 자신감, 지적열정/호기심, 체계성, 신중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 공정성이 가장 높았으나 객관성이 가장 낮은 결과[22]와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본 연구 대상자가 3학년 간호학생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 중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성에 관한 점수가 높고 체계성이나 신중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22][23]와는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장소나 실습환경, 실습지도 방법, 실습내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26]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요인 중 지적 열정/호기심과 객관성으로 선행연구[22]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신중성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열정적인 학습형인 경우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와는 일맥상통하였고[19], 비판적 사고성향 중 지적 열정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중 지적열정과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사례기반학습, PBL 등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임상실습현장의 직접술기의 제한

성을 극복하고 반복적인 기본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안전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중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 실습이나 시뮬레이터 활용 실습이 임상실습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의 일개 간호과의 3학년 1학기에 실습을 마친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해 SPSS 19.0 win programs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중재능력이 3.61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은 지적공정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중성이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9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높아졌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하부요인 중 첫 번째로 지적 열정/ 호기심( $\beta=.478$ )이었고 두 번째로 객관성( $\beta=.296$ )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필요하고 특히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전문직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인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에게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 열정과 호기심을 키워주고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시뮬레이터 활용 실습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교내 실습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References

- [1] Yang, Jin-Ju, "The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Clin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2, pp.276-286, 2000.
- [2] Sung, Mi Hae,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7, No.1, pp.90-98, 2012.
- [3] Kim, Mi Jong, Yoo, Seung Yeon,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2, No.1, pp.105-118, 2014.
- [4] Cho, Mi Hye, Kwon, In Soo,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2, pp.143-154, 2007.
- [5] Yang Jin-Ju, "The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Clin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14-24, 2012.
- [6] Kim, Hae-Ran, Choi, Eun-Young, Kang, Hee-Young, Kim, Seong-Min,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Self - efficacy and th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fter Simulation - based Education on Emergency Nursing Car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5-13, 2011.
- [7] Lee, Ju Hee, Choi, Mona, "Evaluation of Effects of a Clinical Reasoning Cours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3, No.1, pp.1-9, 2011.
- [8] C. Blum, S. Borglund, & D. Parcells, "High-fidelity nursing simulation: Impact on student self-confid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7, No.1, Article 18, 2010.
- [9] Kim, Young-Ock, Bae, Yeong-Suk, Kim, Su-Mi, Yang, Jin-Ju, "The Effects of Web-Contents Learning for Adult-Care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5-13, 2010.
- [10] S. D. Holaday, & K. M. Buckley, "Addressing challenges in nursing education through a clinical instruction model based on a hybrid, inquiry-based learning framework",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29, No.6, pp.353-358, 2008.
- [11] D. Lewi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for students nurses: Key indices from two studies compared over a 25year period",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4, pp.238-246, 2007.
- [12] C. Barre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364-371, 1998.
- [13] Kwon, In Soo, Lee, Ga Eon, Kim, Gyung Duck, Kim, Young Hee, Park, Kyung Min, Park, Hyun Sook, Sohn, Sue Kyung, Lee, Woo Sook, Jang, Keum Seong, Chung, Bok Yae,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6, No.6, pp.950-958, 2006.
- [14] Yoon, Jin, "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4권, No.2, pp.159-166. 2008.
- [15] Yang, Sun-Hee, Sim In-Ok,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6, No.5, pp.612-622. 2016.
- [16] Lee, Ji Yun, Park, So You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 Environment of Nurs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0, No.2, pp.145-153. 2014.
- [17] Park, Sun-Hee,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Autonomy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9, No.4, pp.325-334, 2015.
- [18] Cho, Hak-S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2, pp.222-231, 2005.
- [19] Lee, Ji Hyun, Jun, So Yeun, Kim, Jung Hee,

- Woo, Kyung M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by Type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1, pp.118-130, 2017.
- [20] Yang, Jin-Ju, Park, Mi-Young,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0, No2, pp.271-277, 2004.
- [21] Yoon, Ji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Catholic University, 2004.
- [22] Kang, Yang-Hee, Hong, Min-Joo,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Sty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5, pp.2841-2853, 2014.
- [23] Jang, Hee-Jung, Kwag, Youn-Kyou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4, No.9, pp.4380-4387, 2013.
- [24] Shin, Yun-Hee, Hur, Hea Kung, Park, So Mi, Song, Hee-Young, Kim, Gi Yon,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for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3, No.1, pp.32-40, 2007.
- [25] Park, Hyun Joo, Jang In Sun,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4-23.
- [26] Sim, Mi J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Vol.4, No.1, pp.17-25.

※ 이 논문은 2017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3017026) 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